

생태계 담은 '순천만의새' 도감 발간

순천만·동천하구습지보호지역 서식 조류 정보

252종 조류 정보 수록...연간 10만여 마리 서식

순천시는 람사르습지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핵심지역인 순천만과 동천하구습지보호지역 일대에 서식하는 조류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순천만의 새' 도감을 발간했다.

이번에 제작된 도감에는 순천만 일대에 조류가 252종, 연간 10만여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흑

두루미를 비롯해 재두루미, 황새, 저어새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40종의 멸종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또한, 조류 종별 사진과 함께 분포지도, 출현 시기, 생태 특성 등 조류 정보와 순천만의 역사, 생태적 가치와

탐조정보도 함께 수록하였다.

순천시는 도서관, 순천만 습지를 비롯한 주요 관광지에도 도감을 비치하고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배포하였다.

그리고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생태 가이드북 및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순천만·동천하구, 조계산도립공원의 다른 동식물에 대해서도 도감을 제작하겠다"고 했다.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보성군,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연말까지 끝낸다

보성군은 연말까지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을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어촌 초고속망 고도화 사업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며 전남에서는 보성군이 가장 먼저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최대 50Mbps급 이하의 속도로 운영 중인 마을이 월 사용요금에 따라 1Gbps까지 약 20배 빠른 속도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과기정통부가 초고속 인터넷을 보편서비스로 지정하면서 통신사는 주민이 원할 경우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해야 하나, 통신사가 설치되지 않은 오지·산간벽지 등은 가입자와 통신사가 설치비용을 분담해야 해 주민들의 부담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과기정통부, 전라남도(보성군), (주)KT 간 매칭펀드(1:1:3)로 진행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단독가옥이 인터넷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본 사업에 반영하여 별도의 구축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설치비용 때문에 인터넷 사용을 엄두도 못 내고 있었던 오랜 숙원 민원이 일시에 해결될 전망이다.

보성군은 이번 사업으로 약 77개 마을과 200여 단독가옥이 초고속 인터넷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영상회의 등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와 CCTV 원격영상감시 등이 절실히 필요한 농어촌 마을에 언택트 문화와 산업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희망도서관 '책보따리' 보내

25명 어린이들 택배 발송·추천도서 20권 담겨

광양희망도서관은 최근 사서 추천 도서를 담은 '책보따리' 택배를 25명 어린이의 집으로 모두 발송했다고 밝혔다.

책보따리 서비스는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어린이들의 독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자녀들의 책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해 마련됐다.

희망도서관에서는 13세 이하 어린이를 ▲3세 이하 ▲4-7세 ▲초등 1-2학년 ▲3-4학년 ▲5-6학년 5개 연령대로 나누고, 각 연령별로 5명씩 25명을 모집했다.

이후 500권의 책을 25개의 보따리로 구성된 후 원하는 책보따리를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책보따리에는 어린이 전문기관 추천 책과 희망도서관 최다 대출 도서 등을 바탕으로 사서가 추천하는 해당 연령별 추천도서 20권이 담겨있다. 대출 기간은 14일로, 이용 후 도서관에 반납 신청하면 택배로 수거할 계획이다.

고근성 도서관운영과장은 "안전한 도서관 이용을 위해 도서관 서비스를 비대면 영역으로 점차 넓혀갈 것이다"며, "어린이 독서 습관 양성을 위한 희망도서관의 새로운 시도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전달

위킹스루형 선별진료 부스 등 방역물품 구입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오는 21일까지 1억8천만 원 상당의 방역물품 12종을 각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행정협의회는 지난 8월 28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된 제31차 정기회의에서 코로나19에 공동대응하

기 위해 필요한 방역물품을 구입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방역물품은 광양시는 ▲위킹스루형 선별진료 부스 ▲비접촉식 체온계 ▲마스크 등 4종, 여수시는 ▲위킹스루형 선별진료 부스 ▲마스크 등 6종, 순천시는 ▲위킹스루형 선

별진료 부스 등 5종이다.

구입 비용은 코로나19 여파로 추진이 불발된 연계사업비 일부와 협의 사업비로 지원된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는 지난 3월 감염병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방역과 정보공유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지난 8월 제31차 정기회의

를 통해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 동부지원(해룡면)에 감염병 진단 기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장 인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광양시, 추석대비 코로나19 방역 추진 총력 기울여

광양시는 그동안 두 차례 연휴(5월, 8월)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해 추석에 가족·친지 등의 고향 방문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 감염을 막기 위해 추석 코로나19 방

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명절은 집에서 쉬기 분위기 확산을 위해 고향·친지 방문 자제를 SNS와 누리집, 플래카드, 마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한다.

밀집·밀접·밀폐로 감염 위험도가 높은 고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을 포함한 1,50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관리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하였다.

또한 요양시설(요양병원 포함)은 비접촉 면회를 실시한다.

별초는 지역 농협, 산림조합에서 제공하는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온라인 성묘(www.ehaneul.go.kr) 운영 등을 통해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토록 홍보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여수시, 추석 성수식품 유통·판매·조리 업체 합동 점검 실시



여수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조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오는 22일까지 7일간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3개반 9명 운영

여수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판매·조리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오는 22일까지 7일간 기타 식품판매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186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점검반 3개반 9명(공무원 3, 소비자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6)을 편성해 지도 점검하고 있다.

점검내용은 ▲무신고 영업 행위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여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위반 여부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위변조 판매 행위 ▲식중독 및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설 방역 및 예방 수칙 안내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추석을 대비

해 다소비 가공식품을 수거해 검사를 병행한다.

시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식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해 관내 주민들의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가 오를 수 있도록 식품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정성운 기자

오늘의 위협을 내일의 안전으로

마스크를 만들어 나누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있어
우리는 코로나19를 반드시 이깁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이
평화로운 일상을 하루빨리 누리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일이 행복한 광산
매력·활력·동력

코로나19 임박 극복을 위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의정2지구 상가 상인회

